

핵심관광지 조성 속도낸다 순창군 3년연속 예산 3000억원 시대 경주

지역 매아리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총집합 남원시청서 연석회의 개최

임실군 종합 TF팀 구성 성수산·옥정호 등 개발 관광객 100만 시대 성큼

임실군이 성수산과 옥정호 등 주요 관광자원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군은 최근 미래임실 관광을 주도할 핵심 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한 추진할 수 있는 관광시설조성TF팀을 별도로 만들고, 일원화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광시설조성TF팀은 문화관광치즈와 소속으로 팀장과 팀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이 팀은 성수산과 옥정호, 임실치즈테마파크 등을 기반으로 한 관광시설 조성사업 일체를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해 온 성수산 왕의 숲 조성사업과 옥정호 물문화 물레길 조성사업을 인수받아 차질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성수산 관광개발사업은 올해 84억원 규모의 태조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72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성수산 왕의 숲 조성사업도 단일부서에서 함께 추진됨에 따라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군은 성수산 개발을 위해 올해 53억원을 들여 자연휴양림을 매입한 바 있다. 또한 성수산 산림바이오유휴리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F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0억원이 투입, 추진되는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사업도 맡게 된다.

옥정호와 섬진강의 자원을 활용해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섬진강에코뮤지엄 사업은 에코누리캠퍼스와 붕어섬 에코가든, 에코투어링트, 관광경관도로 등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붕어섬 에코가든(산림욕장) 조성사업의 경우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가 진행되는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옥정호 물문화물레길 조성사업(50억원)도 병행 추진하는 등 옥정호

에코관광특구 종합개발사업의 토대를 구축해 간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 추진될 잠미원 조성 역시 TF팀에서 담당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잠미원은 장소별·테마별로 7개소의 잠미원을 조성하게 된다.

군은 잠미원이 조성되면 가을(10월)에는 국화꽃과 함께하는 축제를 하는 만큼, 봄(5월)에는 장미꽃과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TF팀 구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관광지 개발사업을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사업도 맡게 된다.

임실군은 “성수산은 고려와 조선의 개국설화를 동시에 지닌 역사적인 가치가 뛰어난 명산이고, 옥정호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최고의 특화자원 아니겠느냐”며 “임실치즈테마파크 등과 함께 종합적인 개발을 서둘러서 향후 5년 내에 해마다 100만명이 찾는 관광일선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년보다 203억원 증가한 3408억원 편성 의회 제출

순창군(군수 황숙주)은 20일 올해 예산보다 203억원이 증가한 3,408억원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순창군 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순창군은 2016년 처음 예산 3,000억원을 넘어선 뒤 3년째 3천억원 시대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년도 순창군 예산은 일반회계 3,240억원, 특별회계 168억원을 포함 3,408억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세 83억원, 세외수입 173억원, 국·도비 보조금 1,224억원, 지방교부세 1,534억원, 순세계입금 및 전년도 이월금 394억원이다.

올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203억원, 6.3%가 늘어난 수치로 일반회계는 221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도비사업은 올해 대비 89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세출분야별로는 농업예산이 79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3.25%를 차지해 최대규모이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653억원, 지역개발 분야 354억원 순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경전고속의 강 정비

사업 65억원,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42억원, 현포2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31억원,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원, 강천산 아간명소화 사업 28억원,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 27억원이다.

또 순창 수체협센터 22억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8억원, 풍산 살내다목적경기장 건립 18억원,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17억원, 순창경찰서~옥천교 도로개설사업 15억원, 순창은리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 13억원 등 주민안전과 편익사업, 그리고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대거 포함됐다.

황숙주 군수는 “미래 순창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산업인 건강과 장류산업, 그리고 관광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고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 육성과 생활기반 개선 등 소득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면서 “성장과 함께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생활안전 등 복지예산도 늘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228회 순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구례군) 장들이 20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지리산권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그동안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 집행회의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2008년도 11월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조합으로 창립되어 지리산권역의 공동연계발전 및 영호남 소통과 화합을 위해 기여해 왔으며, 지리산권 통합관광기반 구축, 공동마케팅 기반 구축 및 거점관광시설 투자 등 주요 성과를 달성해왔다.

이날 시군 자치단체장 연석회의에서는 2008년부터 10년간 진행해 오던 제1단계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2017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제2단계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영·호남 소통과 화합의 중심이 되고 권역 내 관광기반조성과 지리산 관광정보화 웹사이트 구축에 성과를 내는 등 자치단체조합으로서 시범적인 역할을 해온 조합의 운영기간 연장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며, 향후 지리산권 공동발전 어젠다 발굴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해야”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의견 제시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나 선 거 구·사진)은 11월 20일 제 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발전에 대한 의견 제시와 정책제안을 했다.

이날 안전 상정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 장의원은 “임실군에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이용에 1,000원 단일요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주시 내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일부 주민들은 1,000원 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완주와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관촌, 신덕, 운암의 일

부 지역주민은 지역요금인 1,300원보다 적게는 2,950원에서 많게는 3,700원의 요금을 추가지불하고 있어 그 어려움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 완주, 임실의 단일요금제 시행을 추진하여 완주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게 해줄 것”과 “단일화 추진이 어려울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그 대안으로 “전라북도에서 총괄하여 14개 시군의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손실보상금을 산정 후 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전 시군의 교통약자들이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이동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으뜸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기탁

남원시 시설사업소는 지난 9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주최하는 ‘2017년 우수과학기술 프로그램 운영사례’ 공모에서 우수기관(장려상)에 선정되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과학관운영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전국에 있는 129개의 과학관에서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중 6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호남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남원항공우주천문대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 과학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인 남원시의 쾌거라 할 수 있다.

또한 포상품으로 지급받은 문화상품권 100만원을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며 주민복지과에 흔쾌히 기탁하여 연말을 맞이한 훈훈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순창군 찾아가는 건강검진 주민 400여명 혜택 ‘호응’

순창군이 올해 주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완료해 주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검진은 마을 출장검진을 총 38회 실시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거동이 불편

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건강검진은 지역으로 병원방문이 불편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검진 항목은 진찰 및 문진,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간기능, 신장질환, 이산화질소, 빈혈등)구강검진 등 21개 검진항목을 실시했다.

박대이 건강검진계장은 “주민들이 보다 더 효과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사업을 내실화 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약허용물질제도 홍보 만전

순창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장회와 면 출장을 통한 홍보에 나섰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 기준을 0.01ppm으로 관리하여 미등록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농약 수입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흑어 농민들이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